

## 북한에서 전시(展示)적 도시의 건설과 한계에 관한 연구

김정은 시대의 유희오락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정일영(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북한에서의 전시(展示)적 도시건설과 그 한계를 김정은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유희오락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 대한 ‘전시(展示)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주민, 특히 지방의 주민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북한은 주요 유희오락시설을 평양에 집중시키고 이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방(도시)이라는 이원적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북한은 유희오락시설 등의 건설에 있어 사회동원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참여를 애국심의 척도로 강조하며 원호사업을 추동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에 다수의 주민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는 일부 집권층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층부 주민들에게 귀속됨에 따라 사회적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주제어: 북한, 한국전쟁, 김정은, 도시, 유희오락시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통일부의 신진연구자 정책연구 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힌다.

## 1. 서론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북한에서의 전시(展示)적 도시건설과 그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특히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 붐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유희오락시설<sup>1)</sup>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에 도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시대의 국토건설전략을 담은 노작을 발표하고 국토건설의 새로운 부흥을 강조해왔다.<sup>2)</sup>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2012년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대단위 주택건설과 유희시설의 건설이 추진되었으며 도시의 공원화와 산림복구사업이 강조되었다. 평양뿐만 아니라 도소재지를 중심으로 빌딩외관을 현대화하고 도로와 그 주변에 대한 미화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희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단위 건설사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징표로 선전되고 있으며 2012년 정권의 출범 이후 김정은이 수행하는 현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에서 건설된 도시의 성격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김정은 시대에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는 유희오락시설의 정치·사회적 목적은 무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이것이 본 연구가 제시하

- 
- 1) 북한에서는 “근로자들의 휴식과 오락을 위한 놀이시설이 모여있는 곳”을 유희장이라 한다. 유희장은 큰 공원의 유희구와 소공원, 아동공원들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 ‘유희오락시설’은 북한이 도시의 공원을 중심으로 건설한 유희오락시설뿐만 아니라 ‘휴양시설’과 ‘체육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1629쪽.
  - 2)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5월 9일, 1~4면.

는 연구질문이다.

북한의 도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첫째, 북한의 공간(도시)구조와 사회(구성원)의 관계에 관한 분석, 둘째,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도시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셋째, 북한의 도시개발과 한반도적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첫 번째로, 북한의 공간(도시)구조와 사회(구성원)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임형백과 전상인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북한의 공간구조를 연구한 임형백은 북한에서 공간구조의 내부 변화요인으로 개혁·개방 전략과 경제특구의 개발을, 그리고 외부 변화요인으로 동북아의 체제전환, 두만강 유역의 개발, 그리고 중국의 성장과 환황해경제권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정치논리에 따른 인위적 공간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왜곡된 시장구조로 인한 비효율적인 공간구조가 병존함으로써 합리적 공간구조로의 개편에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sup>3)</sup>

두 번째로,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도시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는 경남대와 동국대 연구팀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북한의 도시연구에 있어 도시사연구방법을 연구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는 3년간 ‘북한의 도시사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방법론 개발: 함흥·평양의 비교 도시사 연구토대 구축’이란 주제로 토대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동국대 연구팀은 도시공간의 시장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를 추적하였다.<sup>4)</sup>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3년의 연구를 통해 북한 도시의

---

3) 임형백,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 전망: 북한내부 요인과 동북아공간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0권 1호(2010);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전상인 외, “국가 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국토계획』, 제50권 1호(2015); 정창무, “북한의 도시, 인구조와 주택,” 『대한토목학회지』, 제60권 3호(2012) 등이 있다.

형성과 발전,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그리고 북한의 ‘도시정치’와 체제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북한 ‘도시정치’의 주요 특징은 사회주의 권력체제, 공장체제, 지역체제라는 세 영역이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불균등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청진과 신의주, 그리고 혜산이 변경지역의 대도시라는 입지적 특성에 힘입어 대외 교역창구로서 ‘시장형 교역도시’로 변화했다고 지적한다.<sup>5)</sup>

세 번째로, 북한의 도시개발 및 한반도적 시각에서의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는 이상준, 이석기, 조영진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상준(국토연구원) 등은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의 주요거점도시를 분석하고 개발잠재력을 평가하였다. 이들은 남포와 신의주(2011) 그리고 나선, 청진, 원산(2012) 등을 분석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개발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제조업 중심의 발전모형에 적합한 도시의 우선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6)</sup>

- 
- 4) 고유환 외,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고유환 외,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 5) 최완규(편),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파주: 한울아카데미, 2004); 최완규(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최완규(편),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이 외에도 북한의 도시에 대한 연구로는 최봉대, “북한의 도시 연구: 미시적 비교의 문제를 모색과 방법적 보완 문제,”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2013); 임동우, “평양의 도시계획,” 『환경논총』, 제52권(2013); 김기혁, “도로 지명을 통해 본 평양시의 도시 구조 변화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6권 3호(2014); 박희진, “함흥시 도시공간의 지배구조와 탈주체의 삶,”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2013); 박희진, “북한 평성시의 공간전략과 도시성 변화: 위성도시에서 개방도시로,” 『북한연구학회 동계 학술발표논문집』(2013) 등이 있다.
- 6) 이상준 외,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안양: 국토연구원, 2014); 이상준 외,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 II,”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2012); 국토연구원,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

이석기(산업연구원) 등은 산업 발전 잠재력이란 관점에서 북한의 경제특구 발전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북한이 보유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수준을 경제특구 개발의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하고 특구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의 사업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노동력 공급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을 제기하였다.<sup>7)</sup>

이상과 같이, 북한의 도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온 반면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의 도시에 관한 연구, 특히 최근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건설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건설의 성격을 분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전시적 공간’이란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의 국토건설전략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한다. 여기서 도시공간의 전시적 성격이란 북한이 도시를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함을 의미한다.<sup>8)</sup> 둘째, 북한의 문헌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신년사와 『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 『조선건축』 등 공간자료를 분석하고 김정일 정권 말기로부터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도시건설전략의 변화를 추적하도록 한다. 셋

---

1.)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2011).

7) 이석기 외,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특구, 경공업 및 IT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2013).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조영진, 『한반도 통일토지정책』(서울: (주)중앙경제, 1999); 박희진, “김정은 체제의 도시와 도시건설—개발, 관광, 상품화,” 『평화학연구』, 제16권 1호(2015) 등이 있다.

8) 임형백,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 전망: 북한내부 요인과 동북아공간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285 ~ 286쪽.

째, 평양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대단위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사회의 반응, 즉 북한주민의 인식은 어떠한지 분석하기 위해 탈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한다. 탈북자 인터뷰 자료는 1차 자료로 활용하기보다는 북한주민의 단면적 인식을 확인하는 2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전후 북한의 도시건설에 관하여 분석하고, 3절에서는 김정은 시대 유희오락시설 건설의 현황을 알아본 후, 4절에서 그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연구 과제를 제안해보도록 한다.

## 2. 한국전쟁과 ‘주체형의 사회주의적 도시’ 건설

### 1) 한국전쟁: 파괴와 창조의 변곡점

한국전쟁은 북한의 전국토를 파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북한의 국토는 미공군의 폭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아래는 소련의 군사보고로, 북한 지역에서 미공군의 공중폭격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조선에서 활동하는 미 제5공군은 다양한 기종의 비행기 2,4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비행기들은 집단이나 부대 전체 단위 혹은 단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대규모 공습하라

는 클라크의 명령과 관련하여, 미 공군은 작전수행시 30대, 50대 심지어는 100대의 비행기를 동시에 출격시켜 공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폭탄투하 밀도는 도로 0.5km당 20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폭탄은 450kg, 250kg, 100kg입니다.”<sup>9)</sup>

북한은 전쟁기간 8700여 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2800만<sup>2</sup>에 준하는 60여만 호의 살림집, 5000여 개소의 학교, 1000여 개소의 병원과 진료소, 260여 개소의 극장 및 영화관, 670여 개소의 과학연구기관 및 도서관, 그리고 수천 개소의 문화후생시설들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한국전쟁 당시 미공군의 공중폭격은 북한의 주요 도시와 시설을 붕괴시켰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으로 미공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국토는 일본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그 위에 북한식 사회주의 도시화를 진행하는 길을 터주었다.<sup>11)</sup> 김일성은 한반도 통일을 가정하여 이루어온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을 전후복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혹은 필요라는 정당성으로 강행하게 된다. 김일성은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개조의 과정을 일본제국주의시대의 비문명으로부터 현대적 문명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

9) 국사편찬위원회(편역), “중국인민해방군 총군사고문이 소련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에게 보낸 조선에서의 전투정보 보고서, No. 1/00737, 1952년 10월 20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603~610쪽.

1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7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175쪽.

11) 차문석, “문헌자료를 통해서 본 북한의 도시 역사,”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과주: 한울아카데미, 2013), 262쪽.

“이제 야만들의 폭격에 의하여 파괴된 도시와 읍 및 공장지대들을 복구 건설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시대의 비문명적이며 특권계급의 이기적 목적에 부합되었던 퇴폐한 도시건설방식을 배격하고 근로인민의 생활에 편리하며 현대적 문명생활에 적합하도록 도시와 읍들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sup>12)</sup>

이와 같이 북한에서 전후복구사업은 사회주의적 개조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평양을 비롯한 도시들을 ‘문명한 현대적 도시’로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sup>13)</sup>

## 2) 전후 사회주의적 도시의 건설

사회주의 도시건설의 이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적 도시건설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통합내지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하에서 도시와 농촌을 대립개념으로 보고 도시의 자본가들이 농촌의 농민과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도시와 농촌이 종속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인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하였다. 둘째, 사회주의 도시는 반(反) 대도시적 이념을 추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도시악(惡)의 구조적 모순이 무계획적인 도시의 성장과정 속에서 자본가들의 이기심만 충족시킨 결과라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국가

---

12)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1953년 8월 5일),” 『김일성 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25쪽.

13) 김일성, “형제국가 인민들의 고귀한 국제주의적 원조(1953년 12월 20일),” 『김일성 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의 개입과 규제 속에 계획적인 도시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사회주의 도시의 성격은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산업화가 고도화 될수록 도시는 농촌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고 도시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간의 갈등구조가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도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는 도시규모의 억제로 나타났던 것이다.<sup>15)</sup> 그렇다면 전후 북한에서 국토건설, 특히 파괴된 도시의 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전후 북한은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국토개발의 원칙 아래 도시화를 억제하는 개발정책을 취해왔다. 이는 소도시의 건설이란 형태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도시가 지나치게 팽창하면서 상하수도를 놓기 힘들고 도시 공급사업도 어려워지며 교통이 번잡해지는 것과 같은 불편과 고통을 극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도시 형태의 도시를 여러 곳에 건설하는 것은 지역적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해소할 뿐 아니라 지방의 모든 경제적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동원,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하였다.<sup>16)</sup>

“도시규모를 크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규모를 크게하며 도시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은 18~19세기에 하던 낡은 자본주의적 방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도시

---

14) 김원, 『사회주의 도시계획』(서울: 보성각, 2004), 32~34쪽.

15) 임동우, “사회주의 도시의 교훈,” 임동우·라파엘 루나(편), 『북한 도시 읽기』(서울: 답디, 2014), 202~203쪽.

16) 리화선, 『조선건축사 III』(서울: 발언, 1993), 49쪽.

에 비하여 농촌이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지금 일부 일꾼들은 도시의 규모를 될수록 크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시의 규모가 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합니다. 상하수도를 놓기도 힘들고 공급사업을 하기도 어려우며 교통도 매우 번잡하여집니다.”<sup>17)</sup>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도시와 마을은 중앙에 위치한 정치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도로와 철도를 따라 도시공간이 확장되는 단핵구조를 형성한다.<sup>18)</sup> 북한의 도시 또한 자생구조를 갖추도록 계획되었다. 북한의 도시는 단순히 주민들이 생활권이나 소비시설만이 아니라 생산영역, 즉 제조업 등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농경지역도 함께 존재하는 하나의 자생 단위, 독립적인 세포구조를 이루고 있다. 북한에서 도시는 도시영역과 농촌영역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농촌은 단순히 도시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화를 억제하는 역할 또한 담당하였다.<sup>19)</sup> 북한의 도시는 자기완결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핵의 구조하에 내적 통합력과 응집력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sup>20)</sup>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이념이 추구하는 단핵구조를 넘어선 도시의 자생적 구조는 휴전체제의 특성, 즉 군사적 전략 또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를 사회주의적 성격이 투영된 공

---

17) 김일성,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1964년 2월 10일),” 『김일성저작집』, 제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73쪽.

18) Sailer-Fliege, U., “Characteristics of post-socialist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Central Europe,” *Geojournal*, Vol. 49, No. 1(1999), p. 8.

19) 임동우, “사회주의 도시의 교훈,” 199~202쪽.

20) 박희진, “북한 평성시의 공간전략과 도시성 변화: 위성도시에서 개방도시로,” 229쪽.

간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1970년대를 거치며 김일성 우상화 건축 물과 광장을 도시와 마을의 중앙에 배치하는 ‘주체형의 도시’를 건설 하게 된다.<sup>21)</sup> 사회주의적 일반성에, 한반도 분단체제의 구조, 그리고 김일성의 우상화라는 북한의 특수성이 종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3) 도시건설에서 ‘전시(展示)적’ 상징체계의 구축

모든 권력체제는 자체의 존속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물질적이나 감정적·이상적인 동기에 호소하게 된다. 특히 정치권력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수행되는 상징과 의례는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통이나 정통이념, 즉 이데올로기로 구성된다.<sup>22)</sup> 북한의 정치, 사상, 군사 등 국가구성의 모든 부분에서 그 기원은 항일혁명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되며 김일성에 의해 완성되었다. 북한은 전후 한반도 휴전체제하에서 항일, 항미의 역사와 김일성의 우상화를 도시건설에 투영한 ‘전시적’ 상징체계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북한 도시의 상징공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광장의 방향성으로 나타나는 도시의 축, 공공건물 등으로 나타나는 대규모 상징 건축, 그리고 김일성 동상이나 체제의 선전을 위한 조형물 등이다.<sup>23)</sup> 도시의 입구와 중심을 연결하는 가로를 도시의 구성축으로 하며, 이 축을 근거로 상업 및 서비스기능, 문화기능, 사상교양기능을 도시의 핵심지역에 배치하도록 하였다.<sup>24)</sup>

---

21) 리화선, 『조선건축사 Ⅲ』, 29쪽.

22) 조은희, “북한의 상징적 공간과 국가의례,” 임동우·라파엘 루나(편), 『북한 도시 읽기』(서울: 담디, 2014), 94쪽.

23) 임동우·PRAUD, “북한 주요 도시의 공간 구조와 다이어그램,”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과주: 한울아카데미, 2014), 21쪽.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은 “도시중심의 가장 경치 아름다운 높은 언덕 위에 혹은 중심광장”에 세워졌다.<sup>25)</sup> 김일성 동상과 함께 사회주의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공간은 광장이다. 광장의 주변은 사회주의 성격이 가미된 공공건물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교양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sup>26)</sup>

“도시중심부에는 해당 사회의 지도사상과 지도이념, 계급적 성격이 집중적으로 반영된다. 사회의 계급적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 한 도시중심부의 중심주제는 바뀌어질 수 없으며 바뀌어져서는 안된다.”<sup>27)</sup> “평양시 도시중심부의 건축미학적 특징은 ...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과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궁지로운 인민으로 부름없이 살며 일하는 우리인민의 행복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28)</sup>

이와 같이 수령을 둘러싼 ‘인민의 행복상’은 도시의 전시적 성격의 핵심을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평양의 중심부인 김일성 광장에서 중요 경축일에 맞춰 진행되는 대규모의 국가행사를 통해 인민들은 이러한 상징적 행사 속에 주인공 혹은 관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징적 국가의례를 통해 북한이라는 사회를 수령과 국가(당), 인

---

24) 김원, 『사회주의 도시계획』, 241쪽.

25) 리화선, 『조선건축사 III』, 37쪽.

26) 김일성,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1956년 1월 30일)”, 『김일성 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365~367쪽.

27) 김정일, 『건축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17쪽.

28) 김혜선, “사회주의문명도시의 본보기 평양시중심부의 건축미학적 특징.” 『조선건축』, 3호(2014), 10~11쪽.

민들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믿음체계로 재생산하였던 것이다.<sup>29)</sup>

전후 북한의 도시에 건설된 유희오락시설은 ‘로동계급’의 휴식터, 그리고 교양의 장으로 선전되었다. 이 시기에 건설된 유희오락시설은 오락적 성격보다는 휴식공간으로서 공원, 동·식물원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도시의 공원과 동·식물원 등은 청소년들에게 자연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주며 그들에게 자기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학교로도 강조되었다.

“공원과 유원지는 근로자들의 좋은 휴식터일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자연에 대한 산 지식을 주며 그들에게 자기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훌륭한 학교로도 됩니다. 인민들은 잘 꾸려진 공원과 동물원, 식물원에서 흥겹게 휴식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는가를 실물을 통하여 배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나라의 자연과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sup>30)</sup>

전후 북한에서 건설된 도시는 수령체제의 상징공간이자 ‘인민의 행복상’이 형상화된 전시적 공간이었다. 다만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도시는 또 다른 전시적 상징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의 도시는 소위 ‘수령영생위업’의 상징건축물들이 들어섰으며, 김정일 또한 2011년 사망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건축물이 각 도시에 건설되

---

29) 전상인 외, “국가 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34쪽; 탈북자 인터뷰 E(청진 출신).

30) 김일성,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2년 9월 5일),” 『김일성저작집』, 제1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38쪽.

었다. 북한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두 전대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통치기제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31)</sup>

### 3. 김정은 시대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 1) 주체 100년대 ‘건설의 대부흥기’ 선언

북한은 2012년과 2013년 국토건설전략을 담은 노작과 서한을 발표하였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27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형식으로 노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를 발표하였다.<sup>32)</sup> 북한은 또한 건국 이후 처음으로 2013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은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2012년 발표한 노작에서 강조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서 건설부문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였다.<sup>33)</sup>

김정은은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건설에 있어 건설부문의 ‘혁신의 봉화’로서 그 역할

---

31) 황재평,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건축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한 위대한 업적,” 『조선건축』, 1호(2006), 4~5쪽.

32) 이 노작은 같은 해 5월 8일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1~4면.

33) 김정은,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 가자,” 『로동신문』, 2013년 12월 9일, 3~4면.

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국토건설사업을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건설을 통해 인민들이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된다는 것이다.<sup>34)</sup>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sup>35)</sup>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연이어 발표된 김정은의 노작과 서한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국토건설사업을 결부시킴으로써 향후 전개될 대단위 건설사업의 의미를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건설부문을 봉화로 ‘주체 100년대’에 ‘건설의 최전성기, 대번영기’를 열어가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도도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특히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유희시설에 대한 현지도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간 진행된 현지도도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의 현지도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현지도도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

---

34) 위의 신문, 3~4면.

35) 위의 신문, 3~4면.

<표 1> 2010~2013년 현지도 현황

	산업 시설	군부대		건설	유희 시설	농수축 산시설	기타	총 방문지
		군사	산업					
2010년	37	12	5	12	1	10	14	91
2011년	32	15	4	3	3	14	18	86
2012년	5	32	1	5	13	1	18	75
2013년	18	36	12	9	25	6	23	129

자료: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2011~2014년(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2~2015)

말기 유희오락시설에 대한 현지도는 2010년 1건과 2011년 3건뿐이었으나,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2012년 13건, 2013년 25건으로 증가하였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은 평양을 사회주의 선경의 모델로, 즉 전시적 도시로 건설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유희오락시설을 ‘사회주의선경’에서 누리는 ‘문명한 생활’로 제시하고 있다.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하고 풍치수려한 도시로 만들며 모든 도시, 시, 군들에서 거리와 마을, 조국 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고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이 새시대의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sup>36)</sup>

김정은은 “평양시를 본보기로 잘꾸리고 지방도시들도 그렇게 꾸려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가면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것을 강조하였다.<sup>37)</sup> 북한은 이와 같이 평양시를 선 건설하고 이를

36) 최웅술, “선편리성, 후미학성이 훌륭히 구현된 문수물놀이장,” 『조선건축』, 1호 (2014), 8쪽에서 재인용.



지방으로 전파시킴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 2)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현황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북한의 도시건설은 평양을 중심으로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이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선경의 모델로서 건설된 ‘평양’을 인민들에게 선전하고 이를 지방으로 파급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정일 정권 말기인 2010년과 2011년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2010년 총 11건이었으며 2011년 또한 총 11건이 게재되었다.<sup>38)</sup> 김정일 정권 말기에 등장한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들은 평양에 있는 중앙동물원,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등 기존에 있던 유희오락시설들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sup>39)</sup>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각종 유희오락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이후 개선청년공원유희장(5월), 룡라인민유원지(7월), 평양민속공원(9월),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10월), 류경원, 통일거리운동센터(10월), 인민야외빙상장(11월), 로라스케이트장(11월) 등 유희오락시설을 대규모로 개건 및 준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징표’로 선전선동하고 있다.

---

37)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1~4면.

38) 『로동신문』, 2010년 1월~2011년 12월.

39)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개선청년공원(사진),” 『로동신문』, 2010년 7월 5일, 4면; “인민의 웃음과 랑만 끝없이 넘쳐나는 중앙동물원,” 『로동신문』, 2011년 8월 11일, 5면.

<표 2> 김정은 시대 주요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현황

건설시기	유희오락시설	기타 휴양시설
2012년	개선청년공원유희장(5월), 룡라인민유원지(7월), 평양민속공원(9월),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10월), 류경원, 통일거리운동센터(10월), 인민 야외빙상장(11월), 로라스케트장(11월)	
2013년	대동강호, 해당화관(4월), 금수산태양궁전광장 공원화(5월), 룡라인민체육공원(5월), 룡라립체물동영화관(9월), 평양체육관(10월), 문수물놀이장(10월), 미림승마구락(10월)	
2014년	마식령 스키장(1월), 메아리사격관(3월), 청춘거리 체육촌(3월), 5월1일경기장 개건(10월)	송도원국제소년야영소(5월), 연풍과학자휴양소(10월), 평양육아원, 애육원(10월)
2015년	중앙동물원 개건 진행 중	원산육아원, 애육원(6월) 평양국제비행장역사(7월), 평양양로원(8월)

자료: 『노동신문』 2012년 1월~2015년 8월.

2013년에는 대동강호, 해당화관을 개업(4월)하고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 공원화(5월), 룡라인민체육공원(5월), 룡라립체물동영화관(9월), 평양체육관(10월), 문수물놀이장(10월), 미림승마구락부(10월)를 준공하였다.

2014년에는 소위 ‘마식령 속도’로 강조된 마식령 스키장(1월), 메아리사격관(3월), 청춘거리 체육촌(3월), 5월1일경기장(10월)을 개건 및 준공하였다. 2015년에는 평양국제비행장역사(7월)를 개건하고 중앙동물원 개건을 진행하고 있다. 평양과 함께 전국의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유희장과 물놀이장, ‘로라스케트장’을 개건하고 있다. 북한의 유희오락시설 중 김정은 시대에 건설된 시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로동신문』의 연도별 보도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기사는 총 54건으로 이 중 20건이 평양에 새롭게 건설, 혹은 개건 중에 있는 유희오락시설에 대한 기사이며 2건은 지방의 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의 기사였으며 수림화, 원림화 사업은 7건이 보도되었다. 2012년부터 유희오락시설의 건설과 개건사업이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40)</sup>

2013년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총 102건으로 이중 28건이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관한 기사였으며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에 관한 기사가 11건이었다. 2014년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총 79건이었다. 2014년에는 유희오락시설뿐만 아니라 모란봉악단의 공연에 관한 기사가 21건으로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던 시기였다. 2015년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총 47건이었으며 특히 이 시기 육아원과 애육원, 그리고 양로원의 건설에 관한 기사가 11건으로 강조되었다.<sup>41)</sup>

이와 같이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함께 북한은 유희오락시설을 ‘속도전’으로 건설하며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평양에서 먼저 건설되었다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인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sup>42)</sup> 이와 같이 대단위로 건설된 유희오락시설이 북한

40) “승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솟아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2012년 11월 10일, 1면; “전국각지에서 체육시설 개건 및 건설공사 적극 추진,” 『로동신문』, 2012년 9월 20일, 4면; “많은 문화휴식터 건설, 개건보수—전국각지에서,” 『로동신문』, 2012년 11월 4일, 4면.

41) “모든 도시와 마을, 거리들이 사철푸른 잔디로 뒤덮이게 하자,” 『로동신문』, 2013년 5월 20일, 4면.

42) Korea Today, “Place of Ever-growing Pleasure,” *Korea Today*, July, 2012, p. 43;

도시의 전시적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이 실제로 북한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4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 4. 유희오락시설 건설의 주요 특징과 한계

##### 1)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모델, 평양의 재구성

김정은 시대에 강조된 ‘건설의 대부흥’은 평양을 ‘사회주의 선경’,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모델로 건설하는 작업이었다. 북한은 평양을 혁명적 수령관이 선 도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모델로 제시하고 이를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sup>43)</sup>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가꾸어오신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훌륭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선경으로, 인민의 리상과 행복이 참답게 꽃피나는 사회주의지상낙원으로 전변시키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국토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활로가 열려지게 되었다. 창전거리와 룡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을 비롯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을 비롯하여 평양시

---

“The People’s Ideal Comes True,” *Korea Today*, August, 2014, p. 28.

43)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1~4면.

안의 공원과 유원지들, 보통강과 합장강이 일신됨으로써 수도 평양이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변모된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담한 구상과 발기,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sup>44)</sup>

김정은 시대에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된 유희오락시설들은 사회주의부귀영화가 현실에 반영된 현장으로 선전하였다. 김정은은 2012년 7월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에 참석해 직접 놀이기구를 타며 현지지도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는 우리 인민의 행복상이 한껏 비긴 룡라 곱등어관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이 떠올린 고귀한 재부이다. … 룡라곱등어관은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바로 이것이 절세위인들의 은정속에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인민이 룡라곱등어관에서 누구나 심장에 세기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sup>45)</sup>

북한은 국가적 성과를 얻은 집단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유희오락시설을 즐기도록 하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먼저 맛보았다고 선전하였다. 일례로 북한은 ‘인공지구위성’의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등을 평양으로 초청해 이들이 평양의 유희오락시설을 즐기며 즐거워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sup>46)</sup>

---

44) “온 나라를 선군문화가 구현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자,” 『로동신문』, 2013년 4월 8일, 1면.

45)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려고,” 『로동신문』, 2012년 8월 16일, 2면.

46)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류경원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르는 곳마다에 극장, 영화관, 체육관, 야영소, 휴양소, 정양소, 공원, 유원지, 유희장을 비롯한 문화시설이 꾸려져 있다.”<sup>47)</sup>

김정은 시대에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된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은 2015년에 평양에 육아원과 애육원, 그리고 양로원을 건설하며 사회봉사시설의 개건으로 확장되었으며 지방에서 동 시설들의 건설이 강조되고 있다.<sup>48)</sup>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유희오락시설을 즐기는 주체라기보다 동원과 거부할 수 없는 모금의 대상이었다.

“규모가 큰 유희오락시설을 건설할 때, 국가-도-시로 내려오면서 개인들이 부담하게 된다. 주거지의 시설(도로 등)을 새롭게 공사할 경우 주변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나누어 낸다. 이런 나누기가 많다보니 ‘간부들이 나누기 할줄만 안다’는 말을 했다. 직장에서도 내고, 학교, 인민반 별로 겹쳐서 내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있다.”<sup>49)</sup> “실제로 유희장에 가본적은 없다. 국정가격으로 입장권이 배당되도 그럴 시간이 없었다.

---

인민야외빙상장 참관,” 『로동신문』, 2012년 12월 28일, 1면;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릉라곶등어관 참관, 경희극 <사랑> 관람,” 『로동신문』, 2012년 12월 29일, 1면;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통일거리운동센터 참관,” 『로동신문』, 2012년 12월 31일, 3면.

47)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문명수준,” 『로동신문』, 2013년 4월 8일, 2면.

48) “우리 당의 인민사랑, 년로자보호정책이 빛나게 구현된 희한한 건축물—평양 양로원 준공식 진행, 보양생들 새 집으로 이사,” 『로동신문』, 2015년 8월 8일, 1면; “육아원, 애육원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평안북도에서, 황해북도에서,” 『로동신문』, 2015년 5월 20일, 1면.

49) 탈북자 인터뷰 A(함흥 출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돈을 쓰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쌀을 공급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했었다.”<sup>50)</sup>

이와 같이 자신들이 이용하지도 못하는 시설에 대한 원호사업이나 모금이 탐탁지 않으리란 건 당연하다. 특히나 경제위기 이후 국가적인 동원이나 원호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 2) 지방에서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지방에서의 유희오락시설 건설은 각도소재지와 같이 중간규모의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마저도 기존의 소규모 공원과 놀이터를 보수·개건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sup>51)</sup>

“강원도 원산시의 풍치수려한 해변가에 지난 9월 우주비행선, 비행관, 진동회전반, 회전그네 등과 편의봉사망을 갖춘 해안유희장이 건설되었다. ... 강계시에서는 짧은 기간에 역전공원, 강서아동공원을 건설하였으며 강계청년공원의 유희장, 동물원, 뽀트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휴식에 필요한 시설들을 더 갖추어놓았다. ... 개성시의 선죽공원, 청년공원 등 10여개의 공원들에 문화후생시설들이 건설되고 시내 곳곳에 휴식장소들이 잘 꾸려졌다.”<sup>52)</sup>

---

50) 탈북자 인터뷰 C(평양 출신).

51) “더욱 아름답고 문화적인 도시로 - 자강도에서,” 『로동신문』, 2012년 9월 20일, 1면.

52) “많은 문화휴식터 건설, 개건보수 - 전국각지에서,” 『로동신문』, 2012년 11월 4일, 4면.

주요 도시에 새롭게 개건된 유희장의 경우도 평양의 노후시설을 청진, 함흥, 원산 등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대로된 유희장은 평양밖에 없었다. 그런데 유희장들이 도마다 큰 도시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원산에도 2013년에 들어섰다. 청진, 함흥, 원산 정도로 알고 있다. 롤러코스터, 자유로드롭은 평양밖에 없다. 평양에 있던 놀이기구들을 해체하면서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당시에 입장료는 인민들이 사용하기 수월한 정도였다.”<sup>53)</sup> “2013년 전국에 도마다 수영장 건설 등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함흥도 실내수영장을 건설했다.”<sup>54)</sup>

주요 도시의 유희오락시설들은 기존의 시설들을 개건·보수하는 작업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색 있는 것은 주요 도시에 새롭게 롤러스케이팅장을 확산시켜나갔다는 점이다.

“남포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 꾸리기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시의 곳곳에 로라스케이트장들을 건설하였다. 천리마구역과 항구구역, 와우도구역의 넓은 면적에 훌륭하게 꾸려진 로라스케이트장들에서는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 원산시의 해안유희장에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로라스케이트장이 새로 건설되었다.”<sup>55)</sup>

---

53) 탈북자 인터뷰 B(원산 출신).

54) 탈북자 인터뷰 A(함흥 출신).

55) “곳곳에 로라스케이트장을 건설,” 『로동신문』, 2013년 5월 7일, 5면.



지방의 유희오락시설은 원산의 해안유희장과 신의주의 압록강유원지와 같이 해변과 강변을 활용하여 개간·보수를 통해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sup>56)</sup>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또한 평양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농촌지역은 시장가에 개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이나 공기총을 쏘는 사격장이 유일한 상황이다.<sup>57)</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에서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은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평양의 노후 시설을 이전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개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유희오락시설을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북한이 세계적 수준의 스키장으로 선전한 마식령스키장을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로동신문에 나오는 스키타는 아이들의 모습은 대부분 선전용이다. 다만 사로청이나 소년단이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과 같은 사업을 할 때 유희시설을 들러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회가 생기면 부모들이 돈을 들여서 보내기도 한다. 평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유희장에 꼭 들러 구경하고 가려 한다.”<sup>58)</sup> “2010년까지 청진의 청년공원에 있는 유희장은 운영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2010년에 탈북한 이후 유희장이 개건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유희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이용할 형편이 못된다.”<sup>59)</sup>

---

56) 박정국, “새로 건설된 압록강유원지,” 『조선건축』, 3호(2014), 53쪽.

57) 탈북자 인터뷰 F(운성 출신).

58) 탈북자 인터뷰 C(평양 출신).

59) 탈북자 인터뷰 E(청진 출신).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유희오락시설은 ‘도시미화’사업<sup>60)</sup>의 차원에 도시를 정돈하고 수림화·원림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내가 살던 곳은 온성에서도 외곽에 있는 농촌지역이었다. 그 곳에 규모가 큰 미화사업은 없었다. 단지 도로가 포장되어있지 않아 비가 오면 훼손된 도로를 정리하는 일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함께 했다. 그 외엔 가로수에 회칠을 하거나 집주변을 정리하는 정도였다.”<sup>61)</sup> “청진에서는 현지도가 종종 있기 때문에 1호 도로를 가꾸는 일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sup>62)</sup>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강조한 바 있다.<sup>63)</sup> 김정은은 “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10년안에 벌거숭이 산들을 모두 수림화”할 것을 지시하였다.<sup>64)</sup> 이와 같은 산림복구사업은 주로 봄,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을 중심으로 울타리건설,

---

60) 북한에서 ‘도시미화’는 “도시를 아름답고 조화있게 꾸리며 깨끗이 거두는 일”을 말한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 352쪽. ‘도시경영법’은 도시미화사업을 도시의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거두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도시경영법(2006),” [www.unilaw.go.kr](http://www.unilaw.go.kr)(검색일: 2016.2.8). 이 연구에서 ‘도시미화사업’은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거리조성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61) 탈북자 인터뷰 F(온성 출신).

62) 탈북자 인터뷰 D(청진 출신).

63)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5년 1월 1일, 1면.

64)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1~4면.

물도랑정리, 꽃나무와 잔디심기 등 거리와 마을을 가꾸는 사업이 강조되었다.<sup>65)</sup>

### 3) 건설을 통한 동원과 사회통제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진행된 국토건설사업은 사회적 동원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또한 여타의 건설사업과 같이 그 상징적 가치를 혁명적 수령관에 두고 있다. 평양민속공원은 이러한 이념적 가치가 투영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평양민속공원은 우리나라의 원시로부터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봉건왕조, 현대시기까지를 순차성있게 시기별로 명백히 구분하고 매 시기의 역사유적유물을 통하여 당대이 시대상, 생활상을 실지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특히 공원중심축 가운데 부분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그 주위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더욱 두드러지도록 건물, 시설물, 탑들로 현대구를 새롭게 계획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상이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여지도록 하였다.”<sup>66)</sup>

2012년 이후 진행된 대단위 거리조성사업과 함께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또한 인민군건설부대에 의해 진행되었다. 김정은 시대에 선군혁

---

65)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활발히 전개,” 『로동신문』, 2012년 10월 15일, 5면.

66) 박창식, “평양민속공원총계획설계의 기본특징,” 『조선건축』, 1호(2013), 10쪽.

명의 주력군으로서 인민군대에 인민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 것이다.<sup>67)</sup> 특히 평양에서 2012년 10월 한 달 동안 인민군이 동원되어 도시의 공원들과 체육시설들을 건설하거나 개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인민군 장병들은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공원들에 아름다운 록지가 생겨나고 배구장, 룡구장, 바드민턴장과 로라스케트장들이 꾸러졌으며 각종 유희 및 운동기구들로 설치되었다.”<sup>68)</sup> “완전히 개건하고 있는 공원들과 새로 건설하는 큰 공원들은 무려 10여개, 그 부지는 수백만㎡로서 방대한 면적이다. 현대적인 룡구장과 배구장, 바드민턴장, 로라스케트장, 미니골프장들을 수십개나 건설해야하며 근 1만㎡에 달하는 면적에 잔디를 심어야 한다. 수백개의 체육 및 유희기구설치와 많은 야외의자 제작, 울타리 쌓기와 보도블록 깔기도 해야 한다.”<sup>69)</sup>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에 있어 인민군 건설부대는 놀이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작업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0)</sup> 이와 함께 김정 은은 군민협동작전을 강조하고 건설사업장에 각 단위 대중들이 원호 사업을 추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대상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

67)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로동신문』, 2013년 4월 8일, 2면.

68)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새기고 도시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관리하자—인민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기본이다,” 『로동신문』, 2013년 4월 8일, 2면.

69) “군민의 단합된 힘에 의해 평양시 공원들이 훌륭히 꾸러진다—인민의 락원을 가꾸어가는 행복의 창조자들,” 『로동신문』, 2012년 10월 31일, 4면.

70)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보시였다,” 『로동신문』, 2014년 6월 2일, 3면.

나가야 합니다.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천지개벽을 안아온것처럼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는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계속 영웅적 위훈을 세워나감으로써 당군의 자랑스러운 모습,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sup>71)</sup>

대단위 거리조성사업과 함께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에서도 주민들의 원호사업이 강조되었다. 특히 2013년 북한에서 ‘마식령 속도’로 강조되는 마식령스키장의 건설은 전국가적인 원호사업 속에 진행되었다.

“원산고등예술전문학교 학생 류근정은 올해에 여러차례에 걸쳐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아 군인건설자들을 위해 성의를 다하였다. ... 체육과학원 과학방법연구원 김해영 동무는 지난 5월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여성군인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줄 마음으로 많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안겨주었다. ... 이밖에도 옥류관 원산분소 소장 유용남, 송도원려관 지배인 조춘옥, 전자공업성 아랫단위에서 일하고 있는 설계원 김영철, 어느 한 단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신상호를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고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큰 사업, 예를 들면 능리물놀이장, 곱등어관, 마식령 스키장 등의 건설은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란 형

---

71) 김정은,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 3~4면.

식으로 모금이 진행되었다.<sup>72)</sup> 이와 같은 원호사업은 애국심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정치적으로 명예가 필요한 인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일반주민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5. 결론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된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이 갖는 특징과 그 한계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대단위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이상향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의 의도와는 달리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들은 이러한 건설이 자신의 삶과 이완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 건설사업을 통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 대한 전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주민, 특히 지방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건설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북한은 주요 건설사업을 평양에 집중시키고 이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방(도시)이라는 이원적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

---

72) 탈북자 인터뷰 G(혜산 출신).

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북한은 도시건설에 사회동원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참여를 애국심의 척도로 강조하며 원호사업을 추동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에 다수의 주민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는 일부 집권층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층부 주민들에게 귀속됨에 따라 사회적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도시에 관한 분석에 있어 접근 가능한 1차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 또한 일부 탈북자의 증언에만 의존하는 등 연구방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북한의 도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도시를 연구함에 있어 물리적 제반 현황과 국가정책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반응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3월 20일 / 채택: 4월 6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1953년 8월 5일),” 『김일성 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_\_\_\_\_, “형제국가 인민들의 고귀한 국제주의적 원조(1953년 12월 20일),” 『김일성 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_\_\_\_\_,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1956년 1월 30일),” 『김일성 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_\_\_\_\_,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2년 9월 5일),” 『김일성저작집』, 제1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1964년 2월 10일),” 『김일성저작집』, 제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정일, 『건축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리화선, 『조선건축사 III』(서울: 발언, 199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7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2) 논문

김혜선, “사회주의문명도시의 본보기 평양시중심부의 건축미학적 특징,” 『조선건축』, 2014년 3호(2014).

박정국, “새로 건설된 압록강유원지,” 『조선건축』, 2014년 3호(2014).

박창식, “평양민속공원총계획설계의 기본특징,” 『조선건축』, 2013년 1호(2013).

최웅술, “선편리성, 후미학성이 훌륭히 구현된 문수물놀이장,” 『조선건축』, 2014년 1호(2014).

황재평,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건축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한 위대한 업적,” 『조선건축』, 2006년 1호(2006).



### 3) 신문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5월 9일자, 1~4면.

\_\_\_\_\_,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지,” 『로동신문』 2013년 12월 9일자, 3~4면.

\_\_\_\_\_, “신년사” 『로동신문』 2015년 1월 1일자, 1면.

『로동신문』, 2010년 1월~2015년 8월.

### 4) 기타 자료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2011년~2014년』(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2~2015).

## 2. 국내자료

### 1) 단행본

고유환 외,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과주: 한울아카데미, 2013).

\_\_\_\_\_,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 도시사』(과주: 한울아카데미, 2014).

김원, 『사회주의 도시계획』(서울: 보성각, 2004).

이상준 외,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안양: 국토연구원, 2014).

임동우, “사회주의 도시의 교훈,” 임동우·라파엘 루나(편), 『북한 도시 읽기』(서울: 담디, 2014).

임동우·PRAUD, “북한 주요 도시의 공간 구조와 다이어그램,”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 도시사』(과주: 한울아카데미, 2014).

조영진, 『한반도 통일토지정책』(서울: (주)중앙경제, 1999).

조은희, “북한의 상징적 공간과 국가의례,” 임동우·라파엘 루나(편), 『북한 도시 읽기』(서울: 담디, 2014).

차문석, “문헌자료를 통해서 본 북한의 도시 역사,”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과주: 한울아카데미, 2013).

최완규(편),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과주: 한울아카데미, 2004)

\_\_\_\_\_,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과주: 한올아카데미, 2006).

\_\_\_\_\_,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과주: 한올아카데미, 2007).

## 2) 논문

국토연구원,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 과제 I,”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2011).

김기혁, “도로 지명을 통해 본 평양시의 도시 구조 변화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6권 3호(2014).

박희진, “북한 평성시의 공간전략과 도시성 변화: 위성도시에서 개방도시어로,”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2013).

\_\_\_\_\_, “함흥시 도시공간의 지배구조와 탈주체의 삶,”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2013).

\_\_\_\_\_, “김정은 체제의 도시와 도시건설-개방, 관광, 상품화,” 『평화학연구』, 제16권 1호(2015).

이상준 외,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 II,”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2012).

이석기 외,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특구, 경공업 및 IT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2013).

임동우, “평양의 도시계획,” 『환경논총』, 제52권(2013).

임형백,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 전망: 북한내 부요인과 동북아공간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0권 1호(2010).

전상인 외, “국가 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국토계획』, 제50권 1호(2015).

정창무, “북한의 도시, 인구와 주택,” 『대한토목학회지』, 제60권 3호(2012).

최봉대, “북한의 도시 연구: 미시적 비교의 문제틀 모색과 방법적 보완 문제,”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2013).

## 3) 기타 자료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도시경영법(2006),” [www.unilaw.go.kr](http://www.unilaw.go.kr)(검색일: 2016. 2.8).

### 3. 국외 자료

#### 1)논문

Korea Today, “Place of Ever-growing Pleasure,” *Korea Today*, 2012-7(2012), p. 43,

“The People’s Ideal Comes True,” *Korea Today*, 2014-8(2014).

Sailer-Fliege, U., “Characteristics of post-socialist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Central Europe,” *GeoJournal*, Vol. 49, No. 1(1999).

### 4. 탈북자 인터뷰

탈북자 A 함흥 출신 대학생 2014년 탈북.

탈북자 B 원산 출신 운수업 2014년 탈북.

탈북자 C 평양 출신 도매업 2014년 탈북.

탈북자 D 청진 출신 직장인 2010년 탈북.

탈북자 E 청진 출신 무 직 2009년 탈북.

탈북자 F 온성 출신 농 민 2009년 탈북.

탈북자 G 해산 출신 노동자 2008년 탈북.

## A Study on the Objectives and its Limitations of Urban Construction in North Korea

Jeong, Il-Young(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objectives and its limitations of urban construction in North Korea. This paper try to find what makes the changes about Kim Jung Eun regime`s policy of urban planing. Especially This paper focus on amusement facilities on the city in North Korea. Kim Jung Eun has continued to promote building the amusement facilities in Pyongyang. From the 2000s, North Korea declared itself to be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in the near future. Because of the promise, unlike Kim Jong Il regime, Kim Jung Eun focused on people’s happiness. From the year of 2012, North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at the powerful socialist nation just began. Now the people’s happiness is the biggest issue in North Korea. Although their economic condition is still weak and confused,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show the people’s happiness and

improvement of economic situation.

Keywords: North Korea, Korean War, Kim Jung Eun, city  
construction, Amusement facilities